



**DOMAINE
BERTHET
BONDET**

Domaine Berthet-Bondet La Poiriere

도멘 베르데-봉데, 라 뿌아리에르

Winery Description and History

농학 기술자로 커리어를 시작한 Jean Berthet-Bondet와 Chantal은 1984년 Château-Chalon에 정착한 후 1985년 첫 포도를 수확한다. 부부 모두 통상 유구하게 와인을 양조해 온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 터와 와인 메이킹 노하우를 점차적으로 획득해 가는, 소위 진화하는 와이너리로 볼 수 있다. 현재 약 15 헥타르의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으며, 평균 나무 수령은 30년으로 2010년에 이르러 모든 포도밭이 유기농법으로 전환되었다. 현재 부부의 딸 Helene이 2018년 이래로 에스테이트를 물려 받아 퀄리티 쥐라 와인 생산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. 에스테이트를 포함한 모든 건물은 16세기 건축물로 샤토-살롱 수도원 청지기의 집으로 알려져 있으며, 과거 Château-Chalon의 많은 수도승, 수녀들이 소속되어 있던 Franche-Comte의 고귀한 귀족 가문을 대변하는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.

이웃 버건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백포도 품종인 샤도네이로 100% 양조한 라 뿌아리에르는 비산화 와인으로 '우이예(ouille)' 방식으로 10개월 동안 숙성을 거친다. 미네랄이 선사하는 산뜻한 풍미와 놀라울 정도로 팔레트를 두드리는 생생한 과일의 맛은 라 뿌아리에르를 관통하는 특징이다. 육류부터 해산물까지 모든 음식과 어울리는 올 라운더 화이트.



Cotes du Jura, Jura, Bourgogne / France



Chardonnay 100%



2019



13% / 750ml



이회토



228L 오크 배럴 10개월 (ouille)



녹색 빛을 띤 옅은 노란색



감귤류 향과 가벼운 구운 오크 향



섬세한 꽃과 흰 과일의 풍미, 미네랄리티의 완벽한 조화



아페리티프로 적격, 모든 생선 및 해산물

